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 준공식

부안군은 20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준공식이 최근 출포면 현지에서 최남권 출포면장, 박태수 부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최우식 남부안 농업조합장, 배수동 만틀레영농 조합법인 대표 및 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저온선별장(660㎡)·저온저장고(660㎡)는 만틀레영농조합법인이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3억원(보비 3억9,000만원, 군비 3억9,000만원)을 투입해 총 1,320㎡ 규모로 신축했으며 계약재배 농가 확대와 무·양과 수확 생체화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수동 대표는 “저온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는 산지 저온처리를 통해 무·양파의 신선도 유지, 출하조절을 통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효과적 방제 위한 간담회

고창군은 지난 13일 흥덕면행정복지센터에서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창군 고창군산림조합, 고창군조경수협회, 화목사용 농가, 조경수농가, 목재생산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관련자 약 60여명이 참석해 재선충병 방제 방향을 나누고 소통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원인과 사례, 2025년 재선충병 방제 계획과 질의응답,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감염·고사목 제거와 파쇄,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사업을 4월까지 진행하고 우회된 매개충이 활동하는 5~9월에는 지상방제와 드론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대식 개최

부안군, 실천계획 수립·추진·평가 등 지속가능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송희복 이하 부안지속협)가 지난 17일 부안관광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강제 부안군의회 부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출범 선언, 위촉장 수여(B-SiGs분과·경제분과·협력분과 위원장), 탄소중립 실천 선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해 3월 제정된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이현기 부안군의원이 전북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표창장 및 공로 메달을 수여 받는 시상식도 열렸다.

부안지속협은 앞으로 사회·경제·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부안군의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평가, 지속 가능한 발전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 발



굴 및 교육·홍보, 지속가능발전 군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3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부안지속협은 부안 지속가능발전 100인 원탁회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부안군민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앞장섰다.

이날 출범식에서 부안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는 전자제품 사용 절제,

대기전력 제로 도전으로 에너지 절약 생활화, 저탄소로 생산된 녹색제품 구매·사용으로 친환경 녹색소비 실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 걷기, 자전거 타기, 친환경 자동차 구매로 녹색 생활도시 만들기, 재활용을 위한 철저한 분리배출, 대화용기 사용으로 일상 속 자원순환 생활화,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를 억제해 주는 산림지·농경지·조지·습지 보호 및 조성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악취 없는 정읍’ 프로젝트 가동... 생활환경 개선 나서

정읍시, 자부담 포함 총 4억1100만원 예산 투입... 탈취탑 등 9개 악취 저감사업 추진

정읍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3스페셜(Stink-Stop-Sam샘井 정읍) 슬로건 아래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과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악취 저감사업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과 최근 5년 이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시는 자부담을 포함해 총 4억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탈취탑·밀폐화·미생물제 활용 등 9개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3월 중 공고문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악취 배출시설 개선 지원과 함

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처분까지 고려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악취대응반 2명을 충원하고, 실시간 감시와 단속 강화를 위해 무인악취조점기 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악취 민원 대응 저감사업 관리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56세 군민’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지원

고창군이 올해부터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과거의 감염이력이나 현재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별검사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염 여부를 정확히 진

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고 병·의원에서 종합병원 제외) 확진 검사를 받은 군민들이다.

검사 비용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서 접수하거나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

해 3월31일까지이며,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은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만성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평균 잠복기는 6~10주로 피로감, 오심 및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TV 뉴스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시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매주 시민과 만난다’

정읍시, AI 아나운서 뉴스로 시청 홍보 강화

정읍시가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TV 뉴스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시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최초로 매주 유튜브를 통해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정읍소식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 영상은 매주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는데, 촬영부터 대본 작성, 편집까지 시민소통실 공보팀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텍스트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영상 콘텐츠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청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정읍소식’은

정읍시의 주요 정책과 행사, 생활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시청 소식을 전달하고자 AI 아나운서 뉴스를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향후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긴급 재난 정보, 정책 안내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와 함께, 미래를 위한 동행’

정읍시, 2025년 인구정책 통합안내서 발간

정읍시가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5년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정읍시와 함께,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출산·양육, 교육, 귀농·귀촌, 청년·일자리, 외국인 자원(신규), 기타 지원 등 6개 분야 98개 사업이 담겼으며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7개 주요 사업도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량 난임부부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역기반 비자 발급 지원금 지원 △외국인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운영 △출산·임양 가정 쓰레기봉투 지급 △육아수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귀농인 영

농 정착 지원사업 한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신혼부부까지 확대 등이 있다.

시는 시민들이 쉽게 안내서를 접할 수 있도록 실·과·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인구정책)에서 전자책(E-book)과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각종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